

한국 번역출판의 발전방안 연구*

A Study on the Strategies for Developing the Quality of Translation Materials Published in Korea

김 선 남 (Kim, Sun-Nam)**

◁ 목 차 ▷

- | | |
|-----------------|-------------------|
| 1. 서 론 | 2.2 국내 번역출판의 문제점 |
| 1.1 문제의 제기 | 2.3 국내 번역출판의 발전방안 |
| 1.2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 3. 결론 및 제언 |
| 2. 본 론 | <참고문헌> |
| 2.1 국내 번역출판의 현황 | |

< 초 록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번역출판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발전방안을 살피는데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국내 번역출판 현황을 살폈다. 국내 번역출판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모색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시도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 번역출판은, 첫째 번역도서의 발간 및 매출액 비중이 높았다. 둘째, 국내 번역출판은 영미권 및 일본의 문학류, 아동 도서류에 집중되었다. 셋째, 번역사의 경제적·사회문화적 처우는 열악하였다. 국내 번역출판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특정국가의 집중으로 인하여 다양한 문화교류가 저해되고 있다. 둘째, 번역사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 셋째, 선인세 제도가 번역출판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상업성을 야기한다. 넷째, 출판계의 상업주의가 문화 콘텐츠 개발을 약화시킨다. 국내 번역출판의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판사, 에이전시 간의 원활한 관계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국가와 장르의 번역출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번역사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번역사의 안정된 고용조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번역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번역문화의 구조적 변화(예를 들면, 번역기간의 확대, 번역계약 방법)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다양한 국가와 장르의 도서를 소개할 전문 번역사 양성 프로그램을 제도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다양한 번역출판물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유관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要語: 번역출판, 번역사, 선인세, 문화콘텐츠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 원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언론학부 교수(sunkim@wku.ac.kr)

접수일: 2015년 3월 2일 최초심사일: 2015년 3월 12일 심사완료일: 2015년 3월 24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wofold;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ranslation industry and its problems a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library researches and expert interviews: library researches examined translation materials published in Korea; expert interviews focused on the critical problems and possible solutions. With regard to the current status, this study showed several features. First, the portion of translation materials was relatively high in terms of volume and sales. Second, translation was heavily skewed toward literature or children books published either in Japanese or in English. Third, the socio-economic rewards of translators were very poor. This study also found several problems chronicle to the industry. First, the spectrum of cultural diversity was very narrow because publishers favored Japanese and English. Second, translators were poorly payed. Third, the practice of pre-paying stamp duty discouraged the translation variety while projecting commercial elements. Finally, the so-called commercialization of industry blocked the development of cultural contents. As the strategies to resolve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s. First, the publishing company is recommended to build friendly relationships with agencies. Second, translation has to expand its territory to a wide spectrum of literature genres and languages. Third, work conditions, as well as job security and pay scale, of translators must be positively reformed. Fourth, special programs through which professional translators are educated have to be institutionalized. Finally, government and relevant organizations have to show ever-lasting concerns toward the growth of translation industry.

Key words: publication of translation materials, translator,
pre-paying stamp duty, cultural contents

1. 서론

1.1 문제의 제기

2013년 국내에서 발행되었던 신간 종수와 부수는 각각 4만 3,146종, 8,651만 3,472부였다. 최근 국내 출판계는 ‘단군 이래 최대 불황’을 겪고 있다.¹⁾ 번역출판 발행 역시 최근 몇 년간 하락 추세를 보였다. 번역서는 2013년 전체 발행 종수(4만 3,146종)에서 21.6%(9,301종)을 차지하였다. 이는 전년도 25.7%(1만 224종)에 비해 4.1% 낮아진 수치다. 또 이것은 지난 2007년(30%), 2008년(31%)에 비하여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²⁾

번역출판은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서 국가간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채널이다. 우리는 번역 출판물을 통해서 다른 국가의 정치, 사회, 문화, 과학, 예술 등에 대하여 알게 되고, 또 우리의 것을 다른 국가에 전달한다. 만약 우리가 세계화, 국제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국가 차원에서는 물론 개인 차원의 발전과 번영을 꾀할 수가 없게 된다. 출판계에서 번역출판 분야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계화, 국제화 흐름에서 뒤처질 수 있다. 다시 말해 번역출판 투자 없이는 우리는 세계화, 국제화의 흐름을 주도할 수 없게 된다.³⁾

활발한 국제 교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번역출판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즉 번역도서 비율은 29%인데, 이는 세계 1위에 해당하는 것이다.⁴⁾ 번역 도서는 우리 출판문화에서 다양한 국가와의 문화 교류, 다문화의 이해, 독서 인구의 확대 등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받는다.

1) 표정훈, “출판계,” 『2013출판연감』(서울: (사)대한출판문화협회, 2013), 43.

2) 대한출판문화협회, 『2013년 출판통계(남본) 결과』.
<<http://www.kpa21.or.kr/>> (검색일자 2014. 4. 1).

3) 김선남, “국내 번역출판물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연구,” 『한국출판학연구』 통권 43호(2001), 100.

4) 백원근, “번역출판의 양적 성장과 그 함의,” 『번역출판』(서울: 마케팅연구소, 2009a).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국내 번역출판의 부정적 측면에 주목하였다. 즉 국내 번역출판이 특정 국가나 특정 장르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⁵⁾ 즉 번역출판물의 90% 이상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도서 번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⁶⁾ 이는 특정한 사회나 문화만을 유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화의 획일화 현상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연구자들도 국내 출판계가 번역서에 의존하는 경향을 지적하였다.⁷⁾ 이는 국내 연간 종합 베스트셀러 30위권 도서 가운데 번역서가 53%(16종)를 차지하였다는 점에서 확인된다.⁸⁾ 번역서에 대한 의존현상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나친 번역서 의존은 번역의 질적인 문제나 상업화 등과 같은 왜곡된 출판구조를 생산한다. 기존 연구자들은⁹⁾ 국내 번역 전문가수의 부족이 오역, 중역 등과 같은 질적 문제를 유발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번역출판의 문제로는 낮은 번역료, 선인세 등이 특정 출판사의 독점, 불투명한 저작권 중개구조 등을 낳는다는 점이다.¹⁰⁾ 이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번역출판의 현황과 특성, 문제점을 검토하고 발전 방안을 세우는데 있다.

5) 정중화, “외국문화유입과 번역의 문제점-학술서적의 경우를 중심으로,” 『출판문화』 (서울: 대한출판문화협회, 1996). ; 문연주(2008), “일본소설의 국내 번역 출판현황과 특성에 대한 통시적 고찰,” 『한국출판학연구』 통권 제54호(2008).

6) 김청환, “한국의 전역문학, 그 자화상을 말한다. 전문번역가 3인의 분석... 물량은 OECD 국가 중 최다. 문학적 성숙도는 ‘글썩,’” 이는 <http://weekly.hankooki.com/lpage/08_life/200807/wk20080710111518100510.htm> 참조(검색일자: 2014. 4. 1).

7) 백원근, “번역출판의 양적 성장과 그 함의,” 『번역출판』 (서울: 마케팅연구소, 2009a), 52-65. ; 박봉구, “문화 변동과 한국 출판의 변화,” 『한국출판학연구』 통권 제48호(2005), 159-189.

8) 백원근(2009a).

9) 오양열, “한국문학 해외번역. 소개의 현황과 과제,” 『인문과학연구』 통권 제18권(1988), 1-22. ; 김선남(2001), 99-123. ; 황민선, “한국출판의 해외소개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통권 제43호(2001), 353-380.

10) 백원근(2009a) ; 이상원, “한국출판번역 독자들의 번역평가 규범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04). ; 김진두·김창욱, “번역출판과 에이전시에 대한 연구,” 『출판잡지연구』 제20권 2호(2012), 95-113.

1.2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번역출판의 현황과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국내 번역출판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국내 번역출판 현황과 특성을 살폈다. 그런 다음 국내 번역출판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총 10인)을 대상으로 개방형 조사(open-ended survey)를 실시하였다.

문항은 3개의 차원(번역출판의 현황, 문제점, 발전방안)에서 구성되었다. 조사는 2014년 4월 13일부터 4월 27일까지 2주간, 2단계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자는 이메일로 조사설문지를 보내 응답자들로 하여금 기술하게 하여 이를 돌려받았다. 그런 후 각 응답자들과의 심층적인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응답내용을 보충하였다. 전화인터뷰는 응답자별로 약 1시간 정도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표 1>과 같다.

<표 1> 조사 대상자¹¹⁾

순서	나이
1남	57
2남	44
3남	47
4여	56
5여	44
6남	59
7여	32
8여	43
9여	42
10남	43

11) 응답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성, 나이)만을 밝힘.

2. 본 론

2.1 국내 번역출판의 현황

2013년 현재 국내에서 발행된 도서의 종수는 4만 3,146종이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번역 도서가 전체의 9천 301종(21.6%)을 차지하였다. 이는 전체 발행 종수에서 31%나 차지하였던 2008년과 비교해 보면 낮아진 수치이지만 여전히 번역도서는 5권 중에서 1권에 해당한다.

<표 2> 연도별 도서 발행 종수와 번역출판 종수 추이

연도	구분	총 발행 종수	번역출판 발행종수	
		총 발행 종수(중)	번역출판 발행종수(중)	비중
2002		36,186	10,444	28.9
2003		35,371	10,294	29.1
2004		35,394	10,088	28.5
2005		43,598	8,938	24.5
2006		45,521	10,482	23.0
2007		41,094	12,322	30.0
2008		43,099	13,391	31.0
2009		42,191	11,681	28.0
2010		40,291	10,771	27.0
2011		44,036	11,648	26.5
2012		39,767	10,224	25.7
2013		43,146	9,301	21.6

* 출처: 대한출판문화협회, 2013 출납본통계, <<http://www.kpa21.or.kr/>> 재구성

번역출판 종수는 출판사의 매출액과 종사자 규모와 비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규모가 크고 종사자의 수가 많았던 출판사가 더 많은 번역서를 발간하였다. <표 3>에 제시되어 있듯이 번역출판을 발행한 384개 출판사들이 2012년 평균 8.4종의 번역서를 발간하였다. 특히 연간 매출액이 100억 이상을 기록한 출판사 4곳이 전체 번역서의 35.3%를, 또 100인 이상의 종사자를 가진 출판사 4곳이

전체 번역서의 50%를 발간하였다.¹²⁾ 이를 통하여 우리는 번역출판물 제작은 일정 규모의 자본과 인력을 지닌 출판사가 선호하는 분야임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또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즉 연간 매출액이 높은 출판사들이 직원을 더 많이 채용하였으며 번역도서도 더 발행하였다.¹³⁾

<표 3> 매출액과 종사자별 번역도서 증수

(단위: 종)

구분		사례수	평균
전체		384	8.4
매출액 규모별	1억원 미만	94	3.2
	1-10억원 미만	196	5.3
	10-100억원 미만	62	21.1
	100억원 이상	4	35.3
종사자 규모별	1-4인	233	4.0
	5-9인	88	7.5
	10-49인	55	23.9
	50-99인	3	75.3
	100인 이상	4	50.0

* 출처: 한국출판문화진흥원(2013), 출판산업실태조사 - 2012년 출판산업체기준 -, 122

번역출판은 출판사의 매출분야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번역서의 매출 비중은 평균 42.6%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자책 매출의 비중(8.7%)보다 월등히 높았다.¹⁴⁾ 이에 대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13)은 번역도서 발행비중이 높으면 번역도서 매출도 그에 상응한다고 평한 바 있다. 특히 번역도서 가운데 아동도서가 가장 높은 매출비중(47.5%)을 보였으며 일반단행본(46.2%), 학술/전문서(32.6%)가 그 뒤를 이었다.¹⁵⁾

번역출판물이 출판사의 경제적 측면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이들이 베스트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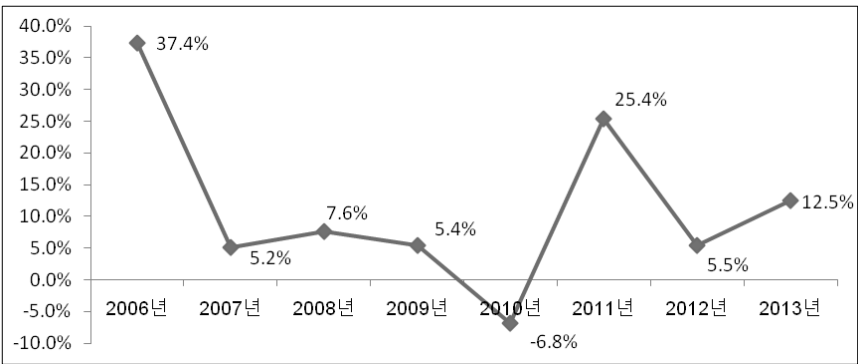
12) 한국출판문화진흥원, 『2013 출판산업실태조사 - 2012년 출판산업체기준』 (서울: 대한출판문화진흥원, 2013).

13) 김기태, 『해의 출판저작권료 실태조사연구』 (서울: (사)한국출판인회의, 2011).

1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13).

15)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13).

러 목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13년의 경우 경제적 불황으로 인하여 신간 출간중수는 전년대비 감소 경향을 보였지만, 베스트셀러의 도서 판매권수는 높아졌다. 특히 기존 유명 작가의 저술물이나 번역서가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차지하였다(<그림 1> 참조). 이 자료는 국내 출판시장이 베스트셀러 지향적 도서 판매구조라는 점, 번역서의 판매가 위력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 출처: 교보문고, 교보문고 2013년 연간 도서판매 동향 및 베스트셀러 분석자료

<그림 1> 종합 100위권 도서의 판매권수 신장률

국내 출판계가 베스트셀러 판매에 의존하고 있고, 또 번역출판이 베스트셀러 대열에 다수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표 4>에 나타나 있다. 2013년 현재 베스트셀러 50위권에 20권(40%)의 번역서가 포함되었다. 이것의 원인은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 열풍과 같은 문화적 요인, 남들이 읽은 작품을 자신이 읽지 않는다면 뒤쳐진다고 생각하는 독자의 심리적 요인, 경쾌함이나 가벼움을 추구하는 독서취향, 외국에서 시장성이 검증된 작가의 작품이 주는 상업성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¹⁶⁾ 그런데 문제는 풍부한 자금력을 지닌 주요 출판사의 판촉활동이 베스트셀

16) 김희선, “번역소설이 출판시장을 휩쓸고 있다(2005)”. 이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1153961>> 참조(검색일자: 2014.

러 만들기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이다.¹⁷⁾ 이 분야의 연구자들은 베스트셀러 지향적인 국내 번역출판의 현실을 우려하고 있다.

<표 4> 베스트셀러 50위(2013)

순위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명	분야
1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헤민 스님	쌤앤파커스	에세이
2	꾸뻬씨의 행복여행	프랑수아 틀로르	오래된미래	소설
3	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	무라카미 하루키	민음사	소설
4	정글만리. 1	조정래	해냄출판사	소설
5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현대문학	소설
6	김미경의 드림 온	김미경	쌤앤파커스	자기계발
7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	샘 혼	갈매나무	자기계발
8	습관의 힘	찰스 두히그	갤리온	자기계발
9	해커스 토익 보카	David Cho	해커스어학연구소	토익토플
10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싶다	이근후	갤리온	에세이
11	해커스 토익 Reading	David Cho	해커스어학연구소	토익토플
12	나는 다만 조금 느릴 뿐이다	강세형	쌤앤파커스	에세이
13	인생수업	법륜	휴	종교
14	1cm+ 일 센터 플러스	김은주	허밍버드	에세이
15	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신경숙	문학동네	소설
16	천 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김난도	오우아	에세이
17	언니의 독설	김미경	21세기북스	자기계발
18	빅 픽처	더글라스 케네디	밝은세상	소설
19	28	정유정	은행나무	소설
20	어떻게 살 것인가	유시민	아포리아	인문
21	해커스 토익 Listening	David Cho	해커스어학연구소	토익토플
22	죽음이란 무엇인가	셸리 케이건	엘도라도	인문
23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	주현성	더좋은책	인문
24	그래도 사랑하라	전대식	공감	에세이

4. 1). ; 조재희, “한국은 번역책 천국 ... 번역비평필요(2008)”. 이는 <http://weekly.hankooki.com/lpage/08_life/200807/wk20080710111518100510.htm> 참조(검색일자: 2014. 4. 1).
17) 박몽구(2005).

순위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명	분야
25	해커스 토익 스타트 Reading	David Cho	해커스어학연구소	토익토플
26	인페르노. 1	댄 브라운	문학수첩	소설
27	제3인류. 1	베르나르 베르베르	열린책들	소설
28	여덟 단어	박웅현	북하우스	인문
29	충 균 쇠	재레드 다이아몬드	문학사상	역사문화
30	마법의 순간	파울로 코엘료	자음과모음	에세이
31	하위드의 선물	에릭 시노웨이	위즈덤하우스	자기계발
32	당신은 전략가입니까	신시아 A.몽고메리	리더스북	경제경영
33	관찰의 힘	안 칩체이스	위너스북	경제경영
34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난도	쌤엔파크스	에세이
35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한성희	갤리온	인문
36	임신출산육아대백과	삼성출판사 편집부	삼성출판사	가정생활
37	살인자의 기억법	김영하	문학동네	소설
38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강수진	인플루엔셜	자기계발
39	고구려. 5	김진명	새움	소설
40	관점을 디자인하라	박용후	프롬북스	자기계발
41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요나스 요나손	열린책들	소설
42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이병률	달	여행
43	이중섭 편지와 그림들	이중섭	다빈치	예술
44	희망의 귀환	차동엽	위즈앤비즈	자기계발
45	365 매일 읽는 긍정의 한 줄	린다 피콘	책이있는풍경	에세이
46	해커스 토익 스타트 Listening	David Cho	해커스어학연구소	토익토플
47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8.0	자기계발
48	원생	케리 켈러	비즈니스북스	자기계발
49	7년 후	기욤 뫼소	밝은세상	소설
50	더 잡	더글라스 케네디	밝은세상	소설

*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15일(교보문고 판매 기준)

** 출처: 교보문고, 교보문고 2013년 연간 도서판매 동향 및 베스트셀러 분석자료

국내 번역출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분야는 문학(22.9%)이었고 그 뒤를 아동(18.8%), 만화(17.1%), 사회과학(12.3%), 기술과학(7.6%), 철학(6.3%), 종교(5.1%), 예술(3.2%), 순수과학(2.3%) 등이었다(<표 5> 참조).¹⁸⁾

18) 대한출판문화협회(2013).

<표 5> 분야별 국내 번역 출판 현황

(단위: 종수, %)

구분 분야	번역 종수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류	32 (0.3)	78 (0.6)	126 (0.9)	122 (1.0)	118 (1.1)	117 (1.0)	70 (0.7)	121 (1.3)
철 학	334 (3.2)	572 (4.6)	569 (4.2)	512 (4.3)	547 (5.1)	654 (5.6)	618 (6.0)	589 (6.3)
종 교	459 (4.4)	796 (6.5)	889 (6.6)	859 (7.4)	683 (6.3)	724 (6.2)	622 (6.1)	474 (5.1)
사회과학	1,257 (12.0)	1,433 (11.6)	1,646 (12.2)	1,528 (13.0)	1,274 (11.8)	1,246 (10.7)	1,213 (11.9)	1,142 (12.3)
순수과학	195 (1.9)	221 (1.8)	236 (1.7)	202 (1.7)	216 (2.0)	272 (2.3)	205 (2.0)	214 (2.3)
기술과학	352 (3.4)	487 (4.0)	549 (4.0)	550 (4.8)	578 (5.4)	740 (6.4)	705 (6.9)	704 (7.6)
예술	303 (2.9)	444 (3.6)	383 (2.8)	345 (2.9)	340 (3.2)	321 (2.8)	321 (3.1)	298 (3.2)
어학	109 (1.0)	192 (1.6)	102 (0.7)	125 (1.0)	103 (1.0)	82 (0.7)	60 (0.6)	76 (0.8)
문학	2,057 (19.6)	2,349 (19.1)	2,478 (18.5)	2,425 (20.8)	2,324 (21.6)	2,415 (20.7)	2,169 (21.2)	2,130 (22.9)
역사	327 (3.1)	290 (2.3)	347 (2.6)	283 (2.5)	202 (1.9)	237 (2.0)	228 (2.2)	215 (2.3)
학습참고	36 (0.3)	3 (0.0)	8 (0.0)	2 (0.0)	1 (0.0)	0 (0.0)	0 (0.0)	0 (0.0)
아동	2,290 (21.8)	2,811 (22.8)	3,586 (26.7)	2,330 (20.0)	2,137 (19.8)	2,545 (21.9)	2,002 (19.6)	1,749 (18.8)
만화	2,731 (26.1)	2,646 (21.5)	2,472 (18.5)	2,398 (20.6)	2,248 (20.9)	2,295 (19.7)	2,011 (19.7)	1,589 (17.1)
계	10,482 (100.0)	12,322 (100.0)	13,391 (100.0)	11,681 (100.0)	10,771 (100.0)	11,648 (100.0)	10,224 (100.0)	9,301 (100.0)

* 출처: 대한출판문화협회, 2013 출납본통계, <<http://www.kpa21.or.kr/>>

2012년 현재 국내 번역출판의 현황을 국가별, 분야별로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전반적으로 번역도서는 일본과 미국에 편중된 현상을 보였다. 즉 국가별 번역도서는 일본(3,948종), 미국(3,107종), 영국(914종), 프랑스(561종), 독일(387종), 중국(364종) 순으로 비중도가 높았다. 일본도서의 번역물은 만화, 문학 분야에서

우세하였던 반면 미국 도서 번역물은 이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특히 일본 문학도서 번역의 높은 비중은 식민지 경험으로 인한 언어·문화적 유사성, 지리적 접근성, 풍부한 번역 인력 등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일본소설의 판매량은 놀라울 만한 것이었다. 일본 소설의 번역서(19.0%)는 한국 소설(34.6%)의 절반을 차지하였다.¹⁹⁾

<표 6> 주요 국가별·분야별 번역 출판 현황(2012)

분야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학습참고	아동	만화	계
총 발행종수	613	1,237	1,889	6,089	521	3,552	1,329	1,192	7,963	1,083	1,379	7,495	5,425	39,767
번역종수	70	618	622	1,213	205	705	321	60	2,169	228	0	2002	2011	10,224
번역서 비중(%)	11.4	49.9	32.9	19.9	39.3	19.8	24.1	5.0	27.2	21.1	0	26.7	37.1	25.7
일본	18	78	20	225	25	267	99	16	781	54	0	362	2,003	3,948
미국	42	262	380	633	111	324	114	15	545	44	0	631	6	3,107
영국	3	49	67	122	25	56	37	7	210	48	0	290	0	914
프랑스	0	33	10	45	3	16	20	3	155	11	0	264	2	561
독일	3	69	23	49	18	15	18	2	85	10	0	95	0	387
중국	3	68	11	66	2	4	8	10	122	36	0	34	0	364
동유럽	0	23	16	15	1	1	4	2	32	11	0	47	0	152
북·중미	1	5	33	9	4	9	3	0	27	2	0	36	0	129
유럽	0	5	3	8	4	4	5	0	34	3	0	36	0	102
오세아니아	0	5	1	9	3	5	1	2	22	4	0	43	0	95
이탈리아	0	4	5	8	1	0	2	0	16	2	0	49	1	88
기타	0	17	53	24	8	4	10	3	140	3	0	115	0	377

* 기타 러시아(84), 스페인(69), 서유럽(54), 남미(40), 동남아시아(35), 인도(34), 아프리카(23), 대만(18), 중동(17), 중앙아시아(3) 순으로 나타났다.

** 출처: 대한출판문화협회, 2012년 출판통계(출협), <<http://www.kpa21.or.kr/>>

19) 백원근, “한국에서의 일본문학 번역출판 현황,” 『한일출판교류 심포지엄-한일 문화교류를 위한 한국문학번역활성화 방안』 발표논문 (서울: 일본국제교류기금서울문화센터, 2011) 8-14.

문제는 번역도서가 특정 국가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일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오락 지향적인 라이트소설이 한국시장에 대량으로, 동시에 소개되었는데 이 소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해약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일본에서 마무리 되지 않았다고 한다.²⁰⁾ 이러한 일본소설이 우리 사회 특히 청소년층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²¹⁾ 일부 연구자들도 일본 문학 번역서의 급증이 문화종속 등과 같은 사회적 폐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바 있다.²²⁾

한편 연구자들은 출판사의 경쟁적으로 일본소설을 번역하려는 상업적인 자세를 비판하였다. 예를 들면 출판사의 경쟁적인 일본소설의 번역과 판매행위는 상업적 이익을 우선시 하는 풍조에서 비롯된 것이며, 선인세 인상 등과 같은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²³⁾ 실제로 일본소설가(무라카미 하루키)의 신작에 대한 선인세가 16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액의 선인세 논란이 출판계의 쟁점으로 떠오른바 있다.²⁴⁾ 출판사가 특정 국가 및 분야의 도서를 번역도서로 선호하는 편향적 선택은 상업 출판의 한 단면이라고 한다.²⁵⁾ 특정 국가의 도서에 집중하는 국내 번역문화는 출판문화의 상업성과 문화적 획일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번역도서의 평균 번역료는 영문도서의 경우 200자 원고지 1매 기준 평균 4,669원인 것으로 나타났다.²⁶⁾ <표 7>에 제시되어 있듯이 가장 높은 번역료 지급은 학술/전문서(6,149원)분야였으며, 아동도서(5,363원), 교과서 및 학습참고서(5,140원), 일반단행본(4,113원)이 뒤를 이었다. 학술/전문서의 경우 전문적인 용어를 번역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서 높은 번역료를 지불하고 있다.²⁷⁾

20) 문연주, “일본소설의 국내 번역 출판현황과 특성에 대한 통시적 고찰,” 『한국출판학연구』 통권 제54호(2001), 189-219.

21) 문연주(2008).

22) 박몽구(2005) ; 김청환(2008) ; 백원근(2011).

23) 문연주(2008).

24) 하현옥, “선인세 16억 배상 ... 스타에 올인하는 출판시장,” 『중앙일보』 2013년 6월 7일자.

25) 김진두 · 김창욱(2012).

26)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13).

27)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13).

<표 7> 번역도서(영문)의 평균 번역료 수준

(단위: 원)

구분		사례수	평균
전체		384	4,669.2
주력 출판 분야별	일반단행본	230	4,113.4
	학술/전문서	89	6,149.2
	교과서 및 학습참고서	11	5,140.0
	아동도서	44	5,363.6
	학습지	1	-
	진집	2	4,000.0
	전자출판	3	3,000.0
	기타	4	1,366.7

* 출처: 한국출판문화진흥원(2013), 출판산업실태조사 - 2012년 출판산업체기준 -, 127.

국내에서 활동하는 번역사들은 번역료가 상당히 낮은 것이라고 인식하였다.²⁸⁾ 이는 제고되어야 할 부분이다.

2.2 국내 번역출판의 문제점

2.2.1 특정국가의 집중

응답자들은 영미권이나 일본 등과 같은 특정국가의 도서를 집중적으로 번역하는 현실을 국내 번역출판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개선되고는 있으나 영미권, 일본 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4여)
 “번역자 수는 늘고 있으나 일본권 도서에 편중되어 있어서 경쟁을 과열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7여)

응답자들은 특정국가 집중적인 번역출판 현상의 원인을 ‘출판사의 상업성’에서

28) 이상원(2004).

찾았다.

“영미권이 압도적으로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대중적으로 글을 쓰니까요.”(1남)

“작가 및 상품성 측면에서 판매가 입증된(리스크가 적은) 책을 선택하다 보니 해외 베스트셀러 및 유명 저자의 책을 선택하게 되고, 그것이 경제·문화 선진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중심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습니다.”(6남)

또 응답자들은 특정국가의 도서에 집중된 번역현실의 또 다른 원인으로 ‘국내 독자의 선호도’, ‘여타 지역에 대한 정보부족 및 언어장벽’ 등을 지적하였다.

“정보의 부족도 있고요.”(1남)

“컨텐츠가 가장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3남)

“영미, 유럽, 일본어권 도서에 대한 독자 친숙도가 높아요.”(5여)

“영미권과 일본어권 도서의 번역 소개가 다수인데 아무래도 정보의 불균형과 언어의 문제가 크겠습니다.”(2남)

특히 언어장벽은 번역가의 수급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응답자들은 특정국가에 집중된 번역문화는 ‘부족한 번역 인력의 산물’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언어권에 대한 독자관심이 낮고 정보도 적은데다 출판사들도 인기에만 쓰는 경향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번역자 층이 얇기 때문입니다.”(4여)

“번역을 떠나 출판의 목적을 생각하면 영미권과 유럽권에 편중되는 건 당연한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유럽권에서도 이탈리아나 스페인 도서가 적게 번역되는 이유는 번역가의 수급 문제일 수 있을 겁니다.”(1남)

“다양한 언어권의 책을 검토하고 번역할 인력이 부족하다.”(5여)

“영미권, 일본어권 외 검토할 수 있는 언어능력의 한계 때문이다.”(7여)

이상으로 응답자들은 특정국가의 집중을 번역출판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것의 원인은 ‘출판사의 상업성’, ‘독자의 선호’, ‘다양한 국가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번역 인력 부족’ 등이었다.

2.2.2 낮은 번역의 질과 열악한 번역사의 처우

응답자들은 번역의 질적 문제점과 번역자에 대한 사회문화적·경제적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응답자들은 다음과 같이 번역의 질을 문제 삼았다.

“번역의 질이 아쉬워요.”(2남)

“번역의 질이 문제입니다.”(4여)

“번역가를 지망하는 분들이 엄청 느는 것 같습니다. 물론 뛰어난 역량을 가진 전문 번역가들이 많지만 아직까지는 번역가 양성 시스템이 부족해 실력 있는 번역가의 재생산이 더딘 것 같습니다.”(2남)

“번역가 특히 번역전문가, 감수자 부족에 따른 번역의 질이 문제입니다.”(6남).

“번역자 수는 늘고 있으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번역자 수는 많지 않아요.”(7여)

응답자들은 낮은 번역의 질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낮은 번역료’를 지적하였다.

“번역 원고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번역자는 번역을 생업으로 삼기 어려울 정도입니다.”(7여)

“무엇보다 번역료가 낮고 번역기간이 짧은 터라 숙성된 번역자를 위한 지원과 협업이 어렵습니다.”(2남)

“번역가에 대한 경제적 보상, 사회적 보상이 미약합니다.”(5여)

“첫 번째는 전문 번역가 부재이고, 두 번째는 짧은 기간에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편집자의 부재이다.”(3남)

국내 출판계에서 번역료는 인세 또는 매절로 지급되는데, 인세는 4% 안팎이며, 매절은 원고지 1매당 3,000~3,500원 수준이라고 한다.²⁹⁾ 200자 원고지 1매 기준 하여 번역료는 평균 4,669원이었다.³⁰⁾ 전반적으로 출판 편집인들은 이 같은 번역료를 “매우 낮은 편”이라고 인식하였으며, “최소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노력에 비해 보수가 너무 적다”, “매절과 인세 방식을 혼합해야 한다.” 등을 요구한 바 있다.³¹⁾

29) 김진두·김창욱(2012).

30) 한국출판문화진흥원연구(2013).

31) 이상원(2004).

이 분야 전문가들은 번역출판의 가치 사슬 구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번역사에 지불되는 낮은 번역료가 국내 번역출판의 장애요소라고 지적한 바 있다.³²⁾

응답자들은 번역사에게 지불되는 낮은 번역료가 졸속 번역, 오역 등의 원인이 된다고 말하였다. 부실한 번역, 졸속 번역, 오역 등은 국내 번역출판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진두·김창옥(2012)은 번역가들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는 부실한 번역을 낳고 결과적으로 독자들에게 피해를 주며 출판문화의 저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³³⁾ 응답자들의 지적을 예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정당한 번역료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전업 번역가의 경우 졸속 번역하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가지 못합니다.”(4여)

“번역출판의 문제 원인은 번역자의 처우가 문제입니다. 특히 번역 원고료입니다.”(7여)

“중역, 오역, 대리 번역 등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것 같아요.”(5여)

“번역출판의 문제점은 오역입니다. 오역은 번역자 양성이 제대로 안된 것이 그 원인인 것 같아요. 번역자의 한국어 및 외국어 실력의 문제뿐 아니라 출판까지의 편집과정에서 꼼꼼하지 못한 문제 등이 있을 듯합니다.”(8여)

“번역의 경우 해당 작품의 장르에 따른 지식과 전문성(경영, 과학, 인사철 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번역가가 부족하다 보니 통번역 수준의 번역가에 의뢰함에 따른 오역 등 졸속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6남)

이상원(2004)도 번역사들이 최소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그들에게 번역료를 지급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³⁴⁾

본 연구에서 응답자들은 번역서의 오역을 번역의 질에서 찾았는데, 이들은 이를 번역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예를 들면 번역자 양성프로그램의 미비, 번역과정이 안고 있는 한계점, 비체계적인 감수과정 및 편집과정 등)의 산물로 인식하였다.

32) 백원근(2009a).

33) 김진두·김창옥(2012).

34) 이상원(2004).

“충분한 번역기간이 부족하다.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6개월~1년 이내 출간 등 계약 조건 등으로 인해 시기에 쫓기다 보니 번역기간 부족 및 검수과정 등이 생략되는 경우 양질의 번역이 이루어지지 못한다.”(6남)

“번역 후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감수과정 미흡 및 감수자(외국인)가 부족합니다.”(6남)

“전문번역가를 양성하지 못한 것, 번역 비평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 번역서의 질에 대한 출판사 및 독자의 책임감과 인식 부족이 원인입니다.”(5여)

“번역을 담당하는 우수한 인력의 양성이 한계가 문제점입니다.”(9여)

이처럼 번역사에 대한 열악한 경제적·사회적 처우가 번역의 질에 영향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에 향후 번역사들의 경제적·사회적 처우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 요구된다.

2.2.3 선인세 제도

응답자들은 선인세를 국내 번역출판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선인세(先印稅)란 책 판매량에 따라 저자에게 지급하게 될 인세 가운데 계약금 성격으로 미리 지급하는 일부 금액을 말한다. 실제 판매량에 따른 인세가 이 금액을 넘어서면 출판사는 저자에게 추가분을 지급해야 하지만 반대로 이 금액에 못 미칠 때는 돌려받지 못한다고 한다.³⁵⁾ 최근 출판계는 특정 작가에게 대한 쏠림현상을 보였다. 출판계는 출혈경쟁에 돌입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왜곡된 출판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³⁶⁾

“과도한 선인세가 문제입니다.”(4여)

응답자들은 선인세 제도는 출판사들의 과당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며, 출판사의 이윤추구의 산물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선인세는 일반 작가와는 무관하게 특정작가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이들에게 자금이 집중되어서 결과적으로 일반작

35) 김진두·김창욱(2012).

36) 하현옥(2013).

가의 낮은 번역료의 원인이 된다.³⁷⁾

“선인세 제도는 인기 저자 또는 잘되는 분야에 대한 쏠림 현상이며 이는 출판사들의 한탕주의와 독자 수준의 합작에서 나온 것이다.”(4여)

“국내 출판계의 문제는 과도한 선인세 경쟁이며 이는 영미권과 일본어권 도서에 편중되어 있어 경쟁을 더 과열시킨다.”(7여)

“문제는 판권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 입도선매로 인한 편향 출판, 문화적 관점보다는 상업적(매출 중대) 관점에서 번역출판물 선정이다. 외국에서 판매력이 입증되었거나 작품성보다는 상품성이 높은 인기작이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선인세가 가중된다.”(6남)

응답자들은 선인세가 출판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특정군 출판사의 입도선매 등으로 해외 저작권료의 상승을 부추기는 과열현상이 야기되고 이에 따라 자금력이 약한 출판사는 진입이 어렵다.”(6남)

“선인세 경쟁으로 출판 양극화 심화된다.”(5여)

“선인세는 독서의 문화적 기반이 약하고 국가의 정책 지원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출판시장이 나날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출판사들은 시장성 위주, 즉 소위 팔리는 책 위주의 번역서 출판 경쟁에 치중하고 있습니다.”(5여)

선인세는 발행부수와 판매부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즉 선인세를 높게 책정하여 출판을 진행하는 경우 발생부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또 그것의 누적발행 부수 및 누적판매부수도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³⁸⁾ 이처럼 선인세는 특정국가나 저자에 집중하는 출판계의 상업성에서 유발된 현상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번역출판의 다양성을 훼손하며 번역사의 경제적 사회적 처우에 악영향을 미친다.

37) 김진두·김창욱(2012).

38) 김기태(2011).

2.2.4 출판계의 상업주의

응답자들은 국내 번역출판의 문제점으로 출판계의 만연된 상업주의를 지적하였다.

“독자를 위한 번역 출판보다는 매출 확대를 위한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3남)

출판사들이 번역출판에 의존하는 것이 출판사의 이윤추구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은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국내 저자 개발보다는 번역서를 출간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는 출판사들의 한탕주의와 독자 수준의 합작물입니다.”(4여)
“문화적 관점보다는 상업적(매출 증대) 관점에서 번역 출판물이 선정되는 것 같아요.”(6남)

응답자는 출판사가 번역출판을 의존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외국에서 판매력이 입증되었거나 작품성보다는 상품성이 높은 인기작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는 선인세를 가중합니다. 또 선진 학문, 기술, 교육, 과학 발전 및 교양 증진 통한 각 분야의 지식 전달 매체로서 출판의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잘 팔리는 책, 상품성이 높은 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6남)

출판사의 상업주의는 번역서 비중을 높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자생적인 학문과 문화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국내 출판사는 주로 팔리는 책 위주의 번역서를 출간한다. 또 출판사 간 선인세 경쟁 등으로 인하여 국내 출판문화의 다양성은 약화되고 출판사의 양극화가 가속화한다.

국내 출판사의 상업성은 번역출판이 소설이나 수필, 자기계발서, 경영서 집중화되었다는 측면에서 재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들은 출판사가 특정 유형의 도서를 집중적으로 번역하여 소개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해외에서 검증된 판매와 인지도를 확보한 특정 책의 타이틀이 당연히 독자의 관심도와 홍보에 유리하겠다는 출판사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2남)
“베스트셀러에 집중된 현상은 베스트셀러에 쏠리는 독자와 거기에 영합해 소위 대박을 터트리고자 하는 출판사들의 협작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봅니다.”(4여)

번역출판에 대한 출판사의 상업적 가치는 베스트셀러 지향적 출판행위로 이어진다.

“특정 장르의 도서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출판사의 입장에선 리스크가 적고 상품성이 높은 작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저작권 에이전시 역시 중개에 따른 리스크와 거래 관계 지속을 위하여 일정 판매 이상을 보장할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하고 이를 위해 매출을 보장할 수 있는 베스트셀러가 안정적이다.”(6남)
“중복출판 현상은 시장성에 매몰된 출판사의 결정의 결과다.”(5여)

또 번역서가 국내 시장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현상은 국내 출판문화의 상업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³⁹⁾ 즉 출판계에 만연해 있는 상업주의가 번역출판을 부추긴다는 것이다.⁴⁰⁾ 즉 번역도서가 범람하는 이유에 대해서 백원근(2009a)은 “외국의 도서는 이미 상품성이나 판매량이 검증되어 최소한의 수익성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신속한 검토와 저렴한 번역을 거쳐 빠른 시간 내에 시장에 내놓을 수가 있어 투자금 회수가 빠르며, 저작권료 부담이 국내 저자에게 지불하는 인세나 원고료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다는 등과 같은 경제원칙”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⁴¹⁾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김윤진(2009)도 자본이나 기획력이 취약한 출판사들이 오랜 시간과 투자를 요구하는 국내 창작도서보다는 수익이 보장된 번역도서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번역물 출판을 선호한다고 강조하였다.⁴²⁾ 이러한 출판사의 상업성은 출판사 간의 양극화를 초

39) 김진두·김창욱(2012).

40) 백원근(2009a).

41) 백원근(2009a).

42) 김윤진, “중국 출판 콘텐츠의 한국내 번역과 수용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09).

래하기도 한다.

번역출판의 상업성은 베스트셀러 지향적이며 특정장르에 집중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또 이는 선인세 등과 같은 현상을 야기하며 결과적으로 출판사의 양극화를 낳는다. 이러한 상업성은 결과적으로 다문화 수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2.3 국내 번역출판의 발전방안

2.3.1 출판사, 에이전시 간의 긴밀한 관계 구축과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

출판사들은 번역 출판시 저작권 전문 에이전시를 경유해서 계약을 체결한다(예, 2000년은 56%이었던 것이 2007년은 86%로 증가).⁴³⁾ 에이전시는 해외작품을 국내에 소개하고 국내의 저작물을 해외에 수출할 때 저작권 계약 중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계약에 수반되는 송금업무, 로얄티 보고, 저작권에 따른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⁴⁴⁾ 번역출판 중수가 많은 국내 출판계에서 에이전시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모든 번역 출판이 에이전시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다 보니 국내 에이전시는 600개가 넘을 정도로 난립되어 있으며 무질서한 시장 질서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⁴⁵⁾ 뿐만 아니라 에이전시와 출판사 간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출판사는 에이전시를 단순히 거간꾼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반면 에이전시는 저작권 사용료의 정산문제로 인하여 출판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⁴⁶⁾

이처럼 저작권 에이전시는 중개기관으로서 외국 도서를 수입하여 국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목적을 이윤 추구에 두고 있어서 번역출판의 상업성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43) 백원근(2009a).

44) 김윤진(2009).

45) 김진두·김창욱(2012).

46) 김기태(2011).

에이전시나 출판사 입장에서 보면 검증된 외국 저작물을 수입하는 것이 더 많이 올릴 수 있다 보니 베스트셀러 위주의 소재를 선택하게 되고 판권에 대한 과도한 경쟁을 유발한다는 것이다.⁴⁷⁾ 최근 번역출판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출판경향과 제살깎기식 저작권료 과장 경쟁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세계적으로 해외 저작권료가 가장 비싼 나라로 인식된다.⁴⁸⁾ 이로 인하여 출판사는 어려워도 저작권 에이전시는 승승장구 한다거나 불투명한 저작권 중개 구조로 인하여 힘없는 출판사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불만도 제기된다.⁴⁹⁾

본 연구에서도 응답자들은 에이전시의 문화적 역할수행자로서 책임감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국내 에이전시가 상업적(수익중대) 관점보다는 문화적 관점에서 역할 증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제도 및 기반 마련 필요합니다.”(6남)

“에이전시들은 국내 출판사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4여)

“출판사, 번역가, 에이전시 등 관계 그룹의 공동체 구성을 통한 번역 출판의 발전방안 모색 필요합니다.”(6남)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번역자, 편집자, 에이전트 필요합니다.”(7여)

응답자들은 출판사와 에이전시 간의 긴밀한 관계설정을 번역출판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들은 문화적 교류의 창구로서 출판사, 에이전시의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을 기대하였다.

2.3.2 번역도서의 다양성 확보

번역출판은 타국의 정치, 사회, 문화,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하고 유용한 콘텐츠를 담아내는 활동이다. 다시 말해서 번역출판은 수용자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도모하는 커뮤니케이션 행위이다. 그러나 국내 번역출판은 특정한

47) 김진두·김창욱(2012).

48) 백원근(2009a).

49) 백원근(2009a).

국가 및 장르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번역서 상당수는 영미권과 일본권이었으며 소설 등과 같은 문학류, 아동류 등에 치중하였다.

응답자들은 다양한 문화권의 도서와 장르의 번역출판물의 확대를 강조하였다.

“더 다양한 언어권, 더 활발한 분야와 형식으로 더 양질의 번역 출판이 활성화 되길 바랍니다.”(1남)

“다양한 문화권의 번역서를 접할 수 있는 출판생태계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8여)

“번역 출판의 다양성 확보와 블루오션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 문화적 요소가 높은 비사업성 작품의 번역 출판은 국가가 출판비용을 지원해야 합니다.”(6남)

“다양한 문화권의 번역서를 접할 수 있는 출판생태계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8여)

응답자들이 내놓은 번역도서의 다양성 전략은 다음과 같다.

“시장성이 부족한 좋은 책의 번역을 위한 지원 제도가 필요합니다.”(5여)

“한국 도서의 수출 증대 및 해외 경쟁력이 강화됨에 따라 판권 수입 및 수출 중개, 번역기반, 출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공적 기구 필요하다.”(6남)

“상업적 출판보다는 선진 기술, 과학, 문화 등 지식 보급과 문화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번역출판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6남)

출판계의 한정된 텍스트 선택의 번역은 독자의 편향적 독서관행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문화의 발달을 저해한다.⁵⁰⁾ 향후 번역출판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 및 장르의 번역물 확대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2.3.3 번역사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화 정책

응답자들은 낮은 번역료를 국내 번역출판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또

50) 김진두·김창욱(2012).

이들은 번역사에 대한 낮은 경제적 및 사회적 처우가 오역, 졸속 번역, 비전문성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번역사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처우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번역사의 고용안정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응답자들은 경제적 처우개선, 구체적으로 번역료의 현실화를 우선적으로 주장하였다.

“번역 원고료 처우 개선 문제가 시급합니다.”(7여)

“무엇보다도 번역료와 번역자의 권리 등에 대한 논의와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1남)

“번역환경은 지난 10년 전보다 더 좋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번역 실력이 향상되었고 인력 풀도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번역료는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번역사의 근무 환경이 열악해졌습니다. 번역 소요시간은 줄어들어 번역 속도가 빨라진 반면에 번역료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이 번역출판의 문제점입니다.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10남)

응답자들은 번역사의 처우개선과 함께 번역문화의 구조적 변화(예를 들면, 번역기간의 확대, 번역계약 방법)가 수반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번역사나 저자의 사회문화적 지위가 높아져야 합니다.”(10남)

“번역자에 대한 처우 특히 번역료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출판사들이 번역료를 올리기 어렵습니다. 번역료가 낮으면 전문성이 결여됩니다.”(10남)

한편 응답자들은 번역사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대하는 한편 번역사의 윤리적 책임도 강조하였다.

“책임 번역제를 제도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10남)

“번역자의 문화적 기여에 대한 공감대와 책임도 더 확산되길 바랍니다.” (1남)

번역사의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번역가의 재교육프로그램, 전문인으로서 번역자의 권익향상 및 윤리 프로그램, 장단기적 전문 번역가 양성 프로그램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3.4 전문번역사 양성 프로그램 구축

응답자들은 번역 출판물이 특정한 국가와 장르에 한정된 현실을 여타 문화에 대한 정보와 관심 부족, 다양한 언어의 도서를 번역할 인력풀의 한계에서 찾았다. 응답자들은 다양한 문화권에 대한 출판사를 비롯한 출판 유관단체의 관심과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 응답자들은 다양한 언어를 번역할 인재양성을 제도화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응답자들은 양질의 번역을 수행할 전문인으로서의 번역사 양성제도가 공적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지적하였다.

“양질의 번역자 양성이 필요합니다.”(8여)

“과대 경쟁을 자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문 번역가 및 전문 편집자를 양성하는 것이다.”(3남)

번역사의 사회적 지위 확보 및 양질의 번역출판 문화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번역가를 지원하고 양성하는 공식적인 제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기존 연구자들의 지적과 맥을 같이한다. 김선남(2001)은 국내 번역출판의 문제점으로 낮은 번역료를 언급하면서 번역활동에 대한 대폭지원, 전문번역인 양성프로그램 개발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⁵¹⁾ 황민선(2001)도 자질이 뛰어난 번역가가 번역을 할 수 있는 번역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을 언급한 바 있다.⁵²⁾

“번역가 양성을 위한 정부의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필요합니다.”(6남)

“전문번역가 지원/양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5여)

향후 국내 번역출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출판계는 다양한 문화권 도서에 대한 관심확대 및 정보수집을 끊임없이 시도해야 할 것이다. 또 다양한 언어권의 도서를 번역할 인력양성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뛰어난 번역

51) 김선남(2001).

52) 황민선(2001).

능력을 가진 번역사 양성 프로그램이 작동하여 양질의 번역문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출판계에서 번역사의 생계가 안정되고 이들이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된다면 번역인력풀은 자연스럽게 조성될 것이다. 이로 인해서 번역사는 전문가로 규정될 것이며 번역문화는 질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2.3.5 번역출판 지원 정책의 확대

기존의 번역출판의 정부 및 유관단체의 지원은 내용과 형식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일부 번역출판 지원 프로그램은 ‘생색용 지원’이라고 평할 만큼 기초학문이나 지식교양사회 토대를 구축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는다.⁵³⁾ 또 번역 출판과 관련하여 정부의 재정 사업은 번역 작품 및 번역사 선정, 번역수준 등에서 시비가 따를 만큼 투명성, 공정성, 합리성 등에서 의심을 받고 있다.⁵⁴⁾

응답자들도 번역출판 지원정책의 확대와 운영의 효율성 및 유용성 등을 지적하였다.

“일반도서에 대한 지원제도는 없습니다. 일반도서에 대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10남)

“아직도 번역 출판되어야 할 고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문화와 학문을 위해 번역을 해야 할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들이 국내에 번역 출판 되려면 출판사가 정당한 번역료를 비롯해 투자 대비 손해는 보지 않는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4여)

“정부차원의 번역지원이 더 확대되고 도서관 등에서 더 많은 부수의 책을 구입해주면 좋겠고, 도서정가제도가 정착하여서 출판사들이 번역가에게 더 많은 번역료를 지급하면 좋겠습니다. 필요 이상의 마케팅에 많은 돈이 투자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4여)

“번역 출판문화가 바뀌려면 작품 선택방법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베스트셀러를 지향하는 편중된 번역이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외 번역 지원 시스템도 대형출판사 중심이어서 중소 출판사에도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10남)

“시장성이 부족한 좋은 책 번역을 위한 지원 제도가 필요합니다.”(5여)

“좋은 책 번역을 위한 정부지원 제도가 필요합니다.”(10남)

53) 백원근(2009b).

54) 백원근(2009b).

번역출판과 관련하여 정부 및 유관단체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지원정책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⁵⁵⁾

3. 결론 및 제언

국내 번역출판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국내 출판계에서 번역도서의 발간 및 매출액 비중이 높다.

2013년 현재 국내에서 새로 발행된 도서 5권 중에서 1권은 번역도서였다. 국내 번역출판을 보면 규모가 크고, 종사자의 수가 많은 출판사에서 더 많은 번역서를 발간하였다. 번역출판은 일정 규모의 자본과 인력을 지닌 출판사에서 가능한 출판 업무로 나타났다. 또한 번역출판물이 출판사의 경제적 측면에 기여하고 있었다. 국내 출판의 판매구조는 베스트셀러에 의존하였는데 특히 다수의 번역출판이 베스트셀러목록에 포함되었다.

② 국내 번역출판은 특정국가와 장르에 집중되어 있다.

국내 번역 소개되는 도서는 국가별로는 영미권 및 일본권에 그리고 장르별로는 문학, 아동류에 집중되었다. 번역서가 특정 국가와 장르에 집중되면 출판문화의 상업성과 문화적 확실성을 유발할 수 있다.

③ 번역사의 경제적·사회문화적 처우는 열악한 편이다. 국내 번역사들은 번역료가 낮다고 인식하였으며 이것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낮은 번역료는 번역의 내용상의 문제로 이어졌다.

국내 번역출판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특정국가의 집중은 다양한 문화교류를 저해한다.

영미권이나 일본의 도서에 집중된 번역문화는 국내 번역출판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출판사의 상업성, 독자의 선호, 다양한 국가

55) 백원근(2009b).

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번역 인력부족 등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국내 번역출판의 특성은 독자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추구 및 문화 교류를 저해할 수 있다.

② 번역사의 열악한 처우는 번역문화 발전을 저해한다.

번역의 질적 문제와 열악한 번역자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처우가 국내 번역출판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번역사에게 지불되는 낮은 번역료는 졸속 번역, 오역 등의 원인이 된다. 부실한 번역은 결과적으로 독자들에게 피해를 주며 출판문화를 저하하는 결과를 빚어낸다.

번역의 질적 문제는 번역사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구조적인 문제(예를 들면 번역자 양성프로그램의 미비, 번역과정이 안고 있는 한계점, 비체계적인 감수과정 및 편집과정 등)에서 생산되었다

③ 선인세 제도는 번역출판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상업성을 야기한다.

선인세는 국내 번역출판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특정 작가에게 대한 쓸림현상은 선인세를 유발하며 이는 왜곡된 출판시장을 형성하는 원인이 된다. 선인세 제도는 출판사들의 과당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며, 출판사의 이윤추구의 산물이다. 또 선인세는 일반작가의 낮은 번역료의 원인이 되며 출판사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선인세는 특정국가나 저자에 집중하는 출판계의 상업성에서 유발된 현상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번역출판의 다양성을 훼손하며 번역사의 경제적 사회적 처우에 악영향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④ 출판계의 상업성은 국내 문화 콘텐츠 개발을 약화시킨다.

출판계의 만연된 상업성은 국내 번역출판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이다. 출판사들은 주로 팔리는 책 위주의 번역서를 출간하며, 선인세 경쟁 등으로 인하여 출판물의 다양성을 약화시키고 출판사를 양극화시킨다. 출판사들의 번역출판에 의존도는 높아지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의 문화 콘텐츠 개발을 약화시킨다.

국내 번역출판의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출판사, 에이전시 간의 원활한 관계구축이 필요하며, 이들은 문화교류의 가교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에이전시, 출판사는 상호간

의 신뢰감을 갖고 독자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 ② 다양한 국가와 장르의 번역출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특정한 국가나 장르에 집중된 번역문화가 다양한 국가나 장르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정된 번역 텍스트 선정은 편향된 독서문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 ③ 번역사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번역사의 안정된 고용조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번역사에 대한 낮은 경제적 처우는 오역, 졸속 번역, 비전문성 등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번역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번역문화의 구조적 변화(예를 들면, 번역기간의 확대, 번역계약 방법)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번역사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 장치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④ 전문 번역사 양성 프로그램이 가동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국가와 장르의 도서를 소개할 전문 번역사 양성 프로그램을 제도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뛰어난 번역 능력을 가진 번역사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양질의 번역문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 ⑤ 다양한 번역출판물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번역출판물의 다양성을 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 및 유관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정부의 지원정책은 다양성, 유용성, 양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국내 번역출판의 현황, 문제점 그리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번역출판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지만 방법론상의 한계점을 갖는다. 즉 본 연구는 편의적인 추출방법을 동원하여 심층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서 다소 무리가 따름을 밝힌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태. 『해외 출판저작권료 실태조사연구』. 서울: (사)한국출판인회의, 2011.
- 김선남. “국내 번역출판물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연구.” 『한국출판학연구』 통권제 43호(2001). 99-123.
- 김윤진. “중국 출판 콘텐츠의 한국내 번역과 수용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09.
- 김진두·김창욱. “번역출판과 에이전시에 대한 연구.” 『출판잡지연구』 제20권 2호(2012). 95-113.
- 김청환. “한국의 번역문학, 그 자화상을 말한다. 전문번역가 3인의 분석... 물량은 OECD국가 중 최다. 문학적 성숙도는 ‘글썩’.” 『주간한국』 (2008).
번역문화발전을 위하여. <http://weekly.hankooki.com/lpage/08_life/200807/wk20080710111518100510.htm> (검색일자: 2014. 4. 1).
- 김희선. “번역소설이 출판시장을 휩쓸고.” (200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1153961>> (검색일자: 2014. 4. 1).
- (사)대한출판문화협회. 『2013 출판연감』. 서울: (사)대한출판문화협회, 2013.
- (사)대한출판문화협회. 『2013년 출판통계(남분) 결과』. <<http://www.kpa21.or.kr/>>.
- 문연주. “일본소설의 국내 번역 출판현황과 특성에 대한 통시적 고찰.” 『한국출판학연구』 통권제54호(2008). 189-219.
- 박몽구. “문화 변동과 한국 출판의 변화.” 『한국출판학연구』 통권 제48호(2005). 159-189.
- 백원근. “국내 번역출판 지원 현황.” 『번역출판』. 서울: 마케팅연구소, 2009b, 90-101.
- 백원근. “번역출판의 양적 성장과 그 함의.” 『번역출판』. 서울: 마케팅연구소, 2009a, 52-65.
- 백원근. “한국에서의 일본문학 번역출판 현황.” 『한일출판교류 심포지엄-한일 문화교류를 위한 한국문학번역활성화 방안』 발표논문(2011). 8-14.

- 오양열. “한국문학 해외번역. 소개의 현황과 과제.” 『인문과학연구』 제18권(1988). 1-22.
- 이상원. “한국출판번역 독자들의 번역평가 규범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04.
- 정종화. “외국문화유입과 번역의 문제점 - 학술서적의 경우를 중심으로.” 『출판문화』 (서울: 대한출판문화협회, 1996). 52-65.
- 조채희. “한국은 번역책 천국... 번역비평필요.” 『연합뉴스』 (2008). <http://weekly.hankooki.com/lpage/08_life/200807/wk20080710111518100510.htm> (검색일자: 2014. 4. 1).
- 표정훈. “(2013) 출판계.” 『2013 출판연감』. 서울: (사)대한출판문화협회, 2013. 43-45.
- 하현욱. “선인세 16억 배상... 스타에 올인하는 출판시장.” 『중앙일보』 2013년 6월 7일자.
- 한국출판문화진흥원. 『2013 출판산업실태조사 - 2012년 출판산업체기준』. 서울: 대한출판문화진흥원, 2013.
- 황민선. “한국출판의 해외소개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통권43호(2001). 353-380.